

“열정은 프로”...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가을축제’

광주일보 주최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9월1일 개막

OB·동성고 야구장 등 4곳서 3개월 대장정 돌입 천왕·지왕·인왕·호남리그 48팀 토너먼트 대결

광주·전남 아마 야구인들의 열정의 무대가 시작된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오는 9월 1일 OB구장 등 4개 구장에서 개막 경기를 갖고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천왕·지왕·인왕·호남리그로 나눠 펼쳐지는 이번 가을 축제에는 총 48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툰다.

개막 첫 주에는 천왕·지왕·인왕 리그의 맞수들이 격돌한다. 경기는 OB구장, 동성고 야구장, 무등중 야구장, 서석초 야구장에서 진행되며 총 18경기의 승자가 가려지게 된다.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7일까지 야구에 대한 열정과 탄탄한 팀워크로 무장한 이들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가 가을 그라운드를 수놓을 전망이다.

팔도 참오리(천왕리그), 세한 재규어스(지왕리그), 청연한방병원(인왕리그), 화순에슬레틱스(호남리그) 등 지난 대회 우승팀들의 2연패를 향한 도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각 리그의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 메달과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메달 및 상금 30만원, 3위 팀에게는 메달과 시합구 1타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개인타이틀 시상도 이뤄진다.

각 리그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우수선수, 심판장 주인공에게도 트로피와 상금이 돌아간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 야구협회와 광주시 생활체육회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시 생활체육회·전남도 생활체육회·KIA타이거즈가 후원한다

◇1주차 경기 일정(9월1일)

▲OB 맥주구장 야구장

관13-송원타이곤스(오전 8시), 백구클럽-파이어볼스(오전 10시), 힘센낙지 용봉점-NH디스커스(오후 12시), 삼지토건-엑터스(오후 2시), 허버베이스볼-광주위리어스(오후 4시·이상 지왕리그 16강전)

▲동성고등학교 야구장

지에이코리아엘리우스-SC나이트(오전 8시), 세종위너스-세한재규어스(오전 10시), 전남대OB-무등산 생태요양병원(오후 12시·이상 지왕리그 16강전), 페가수스-포프리(오후 2시), 다이내믹스-미스앤나이스(오후 4시·인왕리그 16강전)

▲무등중학교 야구장

피닉스-청연 한방병원(오후 12시), 신야구단-에프나인(오후 2시), 상무-광주 슈퍼스타즈(오후 4시·이상 인왕토너먼트 16강전)

▲서석초등학교 야구장

대한철강-수완 동원스크린(오전 8시·인왕리그 16강전), 유한김벌리-로즈 스나이퍼(오전 10시·천왕리그 8강전), 버스터즈-4·19 전국 통일의병대(오후 12시), 광주스파이더스-야구파크(오후 2시·이상 인왕리그 16강전), 팔도참오리-정관장 플레이보이즈(오후 4시·리그 8강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아마 야구인들의 열정 무대인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9월 1일부터 11월까지 OB구장 등 4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총48개팀이 천왕·지왕·인왕·호남리그로 나눠 우승을 다툰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경기모습. <광주일보 DB>



손연재(19·연세대)가 29일(한국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불 종목별 결선에서 매혹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체조요정’ 손연재 너무 긴장했나

후프·볼 종목 놓치는 실수 세계선수권 첫날 아쉬운 7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9·연세대)가 올 시즌 가장 큰 대회인 국제 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종목별 결선에 진출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손연재는 29일(이하 한국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대회 첫째날 후프 종목 결선에서 17.158점을 받아 8명중 7위에 자리했다.

후프는 ‘투란도트’ 음악에 맞춰 우아한 연기를 펼치던 손연재는 후프를 놓치는 실수를 한차례 저질러 아쉬움을 남겼다.

손연재는 이어 열린 볼 종목 결선에서도 볼을 다리 밑으로 누르는 동작에서 볼이 굴러가 큰 감점을 당하며 16.658점을 받는 데 그쳐 7위에 머물렀다.

후프와 볼 종목 1위는 각각 안나 리자르티노바(우크라이나·18.266점)와 마르가리타

마문(러시아·18.516점)이 차지했다.

한국 리듬체조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목별 결선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명이 기량을 겨루는 개인종합 결선에는 신수지(22·은퇴)와 손연재가 각각 2007년과 2011년에 오른 적이 있지만, 예선에서 8위 안에 든 선수만이 출전하는 종목별 결선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했다.

손연재는 앞서 열린 개인종합 예선에서는 후프에서 17.550점, 볼에서 17.400점을 받아 두 종목 합계 34.950점으로 중간 6위에 자리했다.

개인종합 예선 최종 순위는 29일 곤봉과 리본 종목 경기가 펼쳐진 뒤 결정된다. 24위 안에 들면 30일 열린 개인종합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

개인종합 예선 중간 1위는 볼에서 18.333점, 후프에서 18.300점을 받아 합계 36.633점을 기록한 러시아의 마문이다.

아나 쿠드랴체바(러시아·36.582점)와 리자르티노바(우크라이나·36.250점)가 마문의 뒤를 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구난조,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 죄송할 뿐



윤석민 1점차 승리 이끌고도 고개 숙인 까닭은?

“죄송합니다.”

KIA는 지난 28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역전에 이어 1점 차의 리드를 지키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날 마지막에 승리를 책임진 이는 역시 윤석민이었다.

후반기 3아웃째 마구리라는 수석어린은 윤석민은 5-4로 앞서 9회 최후남에 이어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정훈에게 삼진을 뽑아낸 뒤 대타 장성호를 땅볼로 잡으며 투 아웃. 승리를 위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남겨놓고 대타 박준서에게 2루타를 내줬지만 대타 강민호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구리라는 중책을 맡은 뒤 거둔 시즌 네 번째 세이브. 하지만 윤석민은 경기 끝난 후 “고생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던 코칭 스태프에게 “죄송합니다”는 말을 했다. 승리의 추억이 되고도 죄송하다는 말을

팀 4강위해 마무리 자책

도움 안된 것 같아 고민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한 것은 불안했던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다. 앞선 등판이었던 넥센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지키기 했지만 2개의 안타로 2점을 뺐던 만큼 깔끔하게 경기를 끝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 것이다.

윤석민은 “볼펜에서는 관왕인데 이상하게 마운드에서 제구가 좋지 못했다. 내가 공을 높게 던져서 2루타를 맞았다. 좋은 피칭이 아니었다”고 아쉬워했다.

마구리라는 선배가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던 터였다.

선동열 감독이 “마무리 윤석민이 선발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있다”고 헛웃음을 지을 정도로 등판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윤석민은 마운드보다 벤치를 지키는 일이 많았다. 마무리로 보지 않을 땐 18경기에서 8차례 등판해 4세이브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팀은 결국 7위까지 내려앉았다.

해외진출을 준비하면서도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은 윤석민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4강 가능성이 남아있는 동안 윤석민은 마무리 자리를 지킬 생각이다. 늦게까지 마무리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그나마의 바람이다.

윤석민은 “부상으로 초반 출발이 좋지 못했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윤석민과 KIA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천에 류현진 야구장

야구교실 등 꿈나무 육성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인천에 야구장을 건립한다.

인천시는 남동구 남동경기장옆 체육공원 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류현진 선수 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동경기장 체육공원 부지 9만 2417㎡에 성인 야구장 2곳과 리틀 야구장 1곳을 건립하고, 야구 교실 등을 운영해 야구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넥센전 우천 취소 덕아웃에선 “진우가 비를 몰고 다녀”

덕아웃 말 말 말

▲비를 몰고 다녀=덕아웃에 있던 선수들, 김진우가 지나가자. 김진우의 등판 예정 날 우천취소가 많으며, 29일 광주에서 열린 예선이다 KIA와 넥센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어! 문성현이네=30일 선발 명단을 확인한 김진우. 29일 벤치엔과 맞대결이 예정됐지만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자 넥센은 문성현으로 선발을 교체했다.

▲공정이지=슬럼프에 빠져있던 김주형,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각별한 후배 안치홍과 공정 모드로 가기로 했다면서,

▲뭘 있냐요. 공정=안치홍을 올 시즌 뜻대

로 야구가 되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하겠다며,

▲까도 까도 알 수가 없어=홍세완 타격 코치, 김주형을 예상할 수 없다면서, 8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지 못했던 김주형은 롯데와의 두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등 4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무슨 재미로 사냐. 결혼해야~=김정수 투수 코치, 박재홍 해설위원이 덕아웃에 인사를 하러 오자.

▲함평입니다=윤완주, 경기장을 나서며, 함평 기아 쉐린저스 필드 클럽하우스에 입주한 윤완주·이준호·이흥구·서용주·손동욱 등은 함평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